

남성 봉급생활자의 은퇴 전 생활설계프로그램

- 생활문제 인식 및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Pre-retirement Planning Programs for Male Salary Workers

- Focus on Perception and Solving of Life Problems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홍성희**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교수 김순미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혜연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 Hong, Sung-Hee

Dept. of Consumer Life Inform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Kim, Soon-Mi

Dept. of Home Management, Che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Kim, Hye-Y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ffecting factors on male salary workers' pre-retirement plans and pre-retirement planning programs. The focus was on male workers' pre-retirement plans and programs for economy, housing, family relationship, leisure and health care in their elderly life.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salary workers estimated their level of economic and health problems among their elderly life as relatively high. Second, the major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planning for post-retirement were salary workers' age, job satisfaction, and reserved savings for their elderly life. Third, the major affecting factors on participation in pre-retirement planning programs were age, educational attainment, and spouse's job status.

From these findings, it can be concluded that salary workers' level of pre-retirement planning and the needs of pre-retirement planning programs differed from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references. Also, salary workers' characteristics related to job and retirement had more important effects on their pre-retirement planning than economic status.

▲주요어(Key Words) : 은퇴 전 생활설계프로그램(pre-retirement planning programs), 생활문제인식(perception of life problem)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42-C00150)

** 주 저 자 : 홍성희 (E-mail : hsh@kmu.ac.kr)

I. 서 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인구의 7.2%가 65세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4%, 2026년에는 20.0%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71년이 경과되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이행하는데 15년 걸렸던 것에 비한다면 매우 빠른 속도이다. 통계청이 평균 수명에 관한 유엔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최근 20년 동안 평균 수명이 8.4년 늘어 조사국 중 증가속도가 8번째로 빨랐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해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가 되고 있다(통계청, 2005). 이와 같은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율은 노후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변화한 노동시장과 기업의 상황으로 인해 평생직장 내지 기대된 은퇴연령의 개념이 무너진 것은 은퇴와 은퇴 후 생활계획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효를 기초로 한 전통적인 형태의 부양과 소일거리로 생활을 하는 소극적인 노후생활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생활의 주체가 되어 제 2의 인생을 맞이하며, 노후생활을 즐기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형성되면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생활설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남성 봉급생활자는 일정한 노동시장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시기까지 고용을 가정할 수 있어 은퇴 연령을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집단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규정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내지 강제 퇴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그 동안 관료적이고 기능적인 조직 유형인 직업세계에서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규정받는 것에 익숙해 있으나, 은퇴를 기점으로 새롭게 사회구조 및 기업구조의 맥락을 벗어나 스스로 개인과 가족의 삶을 재편성하고 적응(성미애·옥선화, 2002)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남성 봉급생활자는 은퇴 전에 미리 은퇴 후 생활을 설계해야할 필요성이 높고, 생활설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중요 대상이다.

현재 노년기의 가장 큰 문제가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노인의 비율이 매우 낮아 있다는(정경희 등, 2005)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자원은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은퇴 후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즉, 경제적 자원은 인간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며 생활문제의 정도와 이의 해결을 위한 생활계획 실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은퇴 후 경제적 문제는 다른 생활영역에서의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전제조건이 된다. 한편

미래의 노인에게 있어서는 교육수준과 생활의식 등이 향상되면서 생활욕구가 훨씬 다양해질 것이므로 은퇴 후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생활문제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만 한다.

은퇴 후에는 시간, 금전,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문제를 느끼게 된다. 은퇴로 인해 증가된 여가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의존성, 긴장, 우울 및 분노를 경험하며(Knox, 1977), 신체적, 정신적 부조화를 낳게 된다. 또한 은퇴로 인해 사회적 활동과 대인관계가 감소되고, 생활환경에의 불만족이 나타나 불안, 우울 등 심리적 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 있다(허정무, 1998). 따라서 대인관계의 감소를 가족관계를 통해 지지받지 못할 때 사회적, 심리적 적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 사회생활의 축소, 신체적 노화로 인해 주생활은 중요한 생활영역이 된다. 또 노후에는 자신의 신체관리나 일상적인 생활능력이 점차 제한되므로 이러한 신체적 변화를 보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마련되지 못할 때 주거문제는 일상생활 유지나 부양과 관련된 파급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은퇴 후 생활문제는 다차원적이며 복합적인 생활영역으로 구성됨으로써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생활설계가 은퇴 전부터 필요한데, 지금까지 은퇴 후 생활설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경제나 건강 등 일부 영역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총체적인 생활설계로 접근하는데(이승아, 1999; 이지은, 2000; 이형실, 2001; 이주일, 2003) 그쳐, 개인이 은퇴 전후로 처해있는 상황과 필요에 적합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은퇴 후 생활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수 있는 은퇴 준비 교육프로그램은 몇몇 대기업이나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재취업, 창업 및 경제 자산운용 등 경제문제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허정무, 1998; 이주일, 2003). 이는 무엇보다도 은퇴가 과거의 정년보다 훨씬 앞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생계를 위해 재취업을 해야 하거나 퇴직금을 이용한 투자 및 창업 등의 욕구가 많았던 데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그러나 은퇴는 직업생활에서 철수하는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은퇴를 전후로 여러 생활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복합적인 전이과정이므로 다양한 생활영역에 대한 생활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은퇴 후 생활에의 재적응이 요구되는 남성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은퇴를 대비한 은퇴 전 생활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경제, 여가, 건

강, 주거, 가족관계 등의 다섯 가지 생활영역으로부터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은퇴 후 생활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은퇴 후 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생활문제가 발생되므로, 개개인이 자신의 은퇴 후 상황과 필요에 부합되는 생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활문제에 대한 예측과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은퇴 후 생활문제에 대한 인식은 생활설계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남성봉급생활자들이 은퇴 후 생활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생활문제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생활설계의 수립 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생활설계 수립에 도움이 되는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는 생활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개인적인 준비와 사회적 지원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이다. 즉, 개인적인 준비의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생활설계를 실행하고 있으며, 반면 생활설계준비 의식이 낮거나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 기업이나 사회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준비의식을 고취시키고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두가지 방식을 동시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생활설계에 대한 단일의 생활영역이 아닌 제 생활영역으로부터의 접근과 생활설계에 대한 개인적 준비도 및 교육 프로그램 요구를 기초로 한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개인의 총합적인 은퇴 전 생활설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생활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의의를 갖는다.

II. 이론적 배경

1. 은퇴준비로서의 생활설계

은퇴라는 사회적인 제도는 노인이 존경받았던 과거에는 없었던 현대 산업사회의 산물로서, 사회적 생산활동이나 직업활동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은퇴는 직업에서 물러났다는 의미 뿐 아니라 노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의미가 되어 노년기의 시작을 알리는 사회적 체제이기도 하다(김정열, 1997).

은퇴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의미와 영향은 대조적인 두 가지로 제기되고 있다. 우선 무거운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서 벗어나서 자유스러워지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건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무거운 책임과 역할에서 벗어난 것으로 느끼며, 새로운 활동과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취미생활이나 새로운 역할에서 기쁨을 찾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Boss, et al., 1991). 반면 은퇴는 개인에게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몰고 오는 위기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직업생활을 통해 수행했던 모든 심리·사회적인 기능들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며, 정체감을 상실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찾지 못하며, 사회적 지위와 인정을 상실함으로써 자존심과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 또 사회적 유대관계를 상실하는데서 오는 외로움과 소외감에 직면할 수 있다(Miller, 1965; 윤진, 1985). 더 나아가 이러한 요인들이 생활만족도와 행복감 내지는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은퇴는 현실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저하와 역할 상실 등의 문제를 파생시키며 이 시기에 은퇴자들은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노화와 건강상태의 저하 등 모든 생활에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은퇴로 인해 개인이 받는 심리·사회적 영향과 은퇴 이후의 적응양상은 개인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은퇴가 누구에게나 심각한 심리·사회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보편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개인이 은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은퇴 이후에 어떻게 적응해나가는가에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즉, 은퇴자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은퇴 후 생활에 적응하는가 하는 것은 개인이 은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조건이나 환경 및 준비 등이 따라 은퇴를 각기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 결과이다(Maddox, 1970).

사회적 스트레스 모델(Social Stress Model)에 의하면 은퇴 후 수입 감소, 일상생활의 변화, 가정 및 사회적 지위의 하락, 자아정체감의 상실,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등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은퇴 후 생활계획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George, 1980). 즉, 중년기에 세운 은퇴 후 생활에 대비한 계획은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감소시킴으로써 은퇴 후의 생활 적응에 기여한다(지연경·조병은, 1991), 그러므로 은퇴 후의 생활에 대비한 계획의 정도는 은퇴로 인한 생활문제 및 스트레스 인지와 은퇴 후 생활 적응과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2. 생활설계의 영역

일반적으로 은퇴 후에 경험하게 되는 생활문제는 빈곤, 질병, 고독, 무위의 4중고로 본다. 은퇴 후 소득원이 상실되는 한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미비 등으로 빈곤의 문제가 야기되며, 노화로 인해 질병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 핵가족화 및 가족의 결속도 감소로 인해 전통적인 자녀부양의식이 약화되면서 고독과 소외감의 문제가

발생하며, 주생활양식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로 인해 할 일이 없는 무위의 문제가 대두된다(김태현, 1995). 즉, 은퇴 후 생활문제는 경제, 건강, 주거, 가족관계, 여가의 문제로 집약되는데, 이러한 생활문제들은 노후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박경숙, 2003).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경감시키고 대처하기 위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데, 노년기 준비교육이나 퇴직준비교육에서도 노후를 위한 경제준비 및 주택설계, 건강관리, 가족관계 정립, 여가활용 등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전길양 등, 2000; 이주일, 2003). 그러므로 은퇴 후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생활설계를 필요로 하는 생활영역은 경제, 건강, 주거, 여가, 가족관계의 영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경제생활설계

경제적 자원은 은퇴 후 생활문제인식과 해결을 위한 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즉, 개인이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정도에 따라 은퇴 후 생활계획에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은퇴에 따른 소득감소와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은퇴 후에는 이전의 경제적 자원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저소득 상태에 처하게 된다. 또한 경제적 자원의 감소는 나아가 다른 생활영역의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경제적 자원은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장년층의 가장 큰 문제인식은 은퇴로 인해 커다란 소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전길양 등, 2000). 실제로 노인가정과 비노인가정의 재정상태를 비교한 문숙재 등(1996)의 연구에서 노인가정은 비노인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총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및 총지출액이 모두 낮았으며, 유동자산과 실물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액도 낮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은퇴 후에는 소득, 지출 및 자산의 모든 측면에서 경제적 문제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한 은기수(2001)의 분석 결과에서도 노인들은 비노인에 비해 가장 큰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들었으며, 자신의 소득과 소비에 만족하지 못했다. 중년기가계의 경우도 노후준비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경제문제를 들고 있다(이기영 등, 1995).

이와 같이 은퇴 후에는 다양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고정적인 소득원 및 소득액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노후경제생활을 계획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적 노후준비는 단시간 내에 달성될 수 없는 한편 장기간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의해 구매력이 감소되므로 은퇴 전에 현재의 재정상태를 분석

하고 은퇴 후 소득과 지출, 생활수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한다(Rice & Tucker, 1986).

2) 건강생활설계

개인의 건강은 신체적 독립상태와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생활에서 기대되는 역할 수행 및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 조건이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상태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이 고립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조성남, 200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관점으로서가 아니라 신체적, 생리적인 기능과 사회적, 심리적인 상태가 모두 양호하여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하는 포괄적인 상태를 의미하며(장인협·최성재, 2000), 이러한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건강은 건강관리유형, 신체활동량, 식사습관 등의 건강관리 관련 행동과 경제상태, 주거상태, 가족구성원의 형태 등 사회경제요인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이정숙·이인수, 2000). 신체적 건강은 생활만족, 사회적 역할의 수행,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의 소속감, 여가를 유용하게 보내는데 영향을 미치고(Atchley, 1988), 건강상태가 양호할 때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므로 노년기의 건강은 노후생활의 원동력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노후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체적인 건강문제로 나타난 바 있다(이정숙·이인수, 2000).

건강의 중요성은 신체적 및 정신기능의 퇴화와 질병의 저항력이 감퇴되는 중년기 이후부터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40대 이후에는 점차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중년기를 대상으로 한 이지은(2000)의 연구에서도 건강이 노후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았으며, 노후생활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김두섭 등(2000)의 조사에서 중년층의 65.3%가 노후에 닥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에 대비한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은퇴를 전후하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주거생활설계

핵가족화에 따라 노후의 주거형태로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독립적인 거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노년기에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노후의 주거문제는 단순히 주택유형의 선호나 거주지역의 문제 이상의 복합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갖

는다. 즉, 생활여건의 취약성으로 인해 어떤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는가의 문제는 경제적 능력과 일상생활능력, 부양유형, 부모자녀관계의 측면이 서로 연관된 생활문제(김순미 등, 2004)인 것이다. 노인들은 상실감, 건강문제, 가족문제와 함께 주거환경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보다는 익숙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싶어하므로(Golant, 1982) 은퇴 후 거주형태로 건강상태나 경제적 능력, 자녀의 부양 의사 등에 따라 본인의 집에서 자립생활을 하거나 시설이 완비된 유료노인시설, 노인전문병원 등 여러 가지 선택 및 대안에 대해 은퇴 전부터 고려와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에서 생활함으로써 주거문제와 부양문제를 해결하는 주거형태로서 실버타운이 증가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각종 편의, 여가, 간호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문운상(1996)에 의하면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은 노후 주거유형으로 유료양로시설, 노인가파트, 노인촌락, 노인요양원, 노인병원, 노인휴양소 등 양질의 서비스를 갖춘 다양한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년층의 노후준비로서 실버타운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수준은 높지만 실제 입주의사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기도 한다(김순미 등, 2004). 그러나 노후의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은 자신의 부양유형을 계획할 수 있는 반면,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나쁜 경우 경제적 자원이나 선호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노인시설에서의 의존적 부양이 불가피해진다(곽인숙, 1998).

4) 여가생활설계

여가활동은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인이다. 여가활동은 은퇴 후 생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며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온 여가활동이 새로이 추구하는 여가활동보다 생활의 만족을 준다고 보고되었다(Bischof, 1976; Jacobson, 1974).

특히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질 뿐 아니라 은퇴 후에는 전력을 경주했던 직업생활에서 가족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활동영역이 재구성되며(서병숙, 1996), 기능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조직생활을 떠나 일상생활을 새롭게 재편성해야 하므로 은퇴 후의 생활시간계획 및 활동계획 등을 포함한 여가생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여가활동이 노인의 생활만족 및 성공적인 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연구결과(송정선, 1997; 홍성희, 1998)나 중년층이 노후생활에서 무료함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이지은, 2000)를 통해 은퇴 후에

는 이전 시기에 비해 여가의 의의와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노후에는 여가 경험의 부족, 경제적 문제, 여가정보의 부족 등의 여가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지은, 2000). 이러한 여가문제와 관련하여 Atchley(1998)는 청년기부터 여가시간을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보낸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McPherson & Guppy(1979)는 은퇴 후의 여가활동은 은퇴 전의 여가활동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성인기나 청년기부터 여가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은퇴 후 이가생활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년기 대상자의 35.9%만이 노후 여가생활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여가생활계획의 시작 시기도 50대부터가 바람직한 것으로 본 이지은(2000)의 결과를 통해, 많은 연구에서 은퇴 전 여가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 중년층들은 일찍부터 여가생활을 계획해야 하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가족생활설계

가족이 중심적인 조직망이 되는 은퇴기에는 남성퇴직자의 가족에로의 통합이 가장 중요한 사회심리적 과제가 되며,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그러나 가족관계는 은퇴 후 새로이 정립되기 보다는 과거의 상호작용경험이 축적되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과 직장에 전념했던 남성이 은퇴 후에 배우자나 자녀와 화합하여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문소정, 1995).

가족발달적 관점에 의하면 은퇴 후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남편의 지위 변화로 인해 부부의 급격한 역할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직업적 요구가 감소함에 따라 성역할 구분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또 상징적 상호론적 관점에서는 은퇴 후 남편의 직업역할 상실로 인한 자아개념의 변화는 부부역할에 재평가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이 두 가지 관점은 공통적으로 은퇴 후 부부의 역할 변화와 재조정을 지적하고 있는데, 시간공유가 많아지고 동반자적이고 친구 같은 관계를 갖게 됨에 따라 가사노동이 보다 공평하게 분담되고 상호간에 정서적 의존도가 커지며 의사결정양상도 공유하게 됨을 예측할 수 있다.

노년기에는 배우자 못지않게 성인자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노부모-자녀간의 유대가 애정과 친밀감에 기초한 결합에 의해 이루어질 때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향상된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일차적 부양자로서 가능하였던 자녀들의 노인부양의식이 점차 희박해짐에 따라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는 새로운 전환을 맞고 있다.

가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최선의 삶의 방식이 제도화된 것으로(이광규 등, 1996), 배우자와 자녀는 은퇴 후 퇴직자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지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현, 1995).

3. 관련 변수

1) 연령

퇴직 후 생활설계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다는 연구(Kilty & Behling, 1985)와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더 경제계획 및 여가계획을 세운 경향을 보인 결과(이지은, 2000)도 나타난다. 또한 연령에 따라 생활설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허정무, 1993; 이승아, 1999)도 있다. 그러나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점차 은퇴 후에 대한 생활계획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한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으므로 연령이 높을수록 은퇴 후 생활설계를 수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령은 퇴직준비교육 참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이주일, 2003), 고연령층이 은퇴 후 생활설계를 위한 정보 탐색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2) 교육수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은퇴 후 생활설계의 계획성이 높으며(McPherson & Guppy, 1979), 노후의 독립적 경제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 준비와 건강보험과 같은 건강대책을 준비한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김두섭, 2001). 반면 교육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Barfield & Morgan, 1978; 이승아, 1999)도 있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은퇴 후 생활설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생활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설계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건강상태

Barfield & Morgan(1978), McPherson & Guppy(1979), 이승아(1999)의 연구에서는 건강상태가 은퇴 후 생활설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은퇴 후 생활계획의 계획성이 높게 나타났다. 홍성희와 곽인숙(2006)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노후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노후 건강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건강은 특히 노년기의 건강 악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지는 인적 자원으로서 현재의 건강상태가 은퇴 후 건강계획을 비롯한 생활설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4) 가계소득 및 자산

소득 및 자산은 생활수준 및 생활양식,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규정하는 요인으로서 퇴직 후 생활설계에 영향을 미친다(서병숙, 1992). 많은 연구에서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노후 준비 및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설계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정석(2001), 이지은(2000), 배문조 등(2004)의 연구에서는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은퇴준비를 잘 하고 경제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높았으며, 지연경 등(1991)의 연구에서는 퇴직 후의 취미생활, 건강 유지, 여가 등에 대해 계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은 소득과 함께 은퇴 후 생활설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지은(2000)의 연구에서는 중년남성가계의 총자산이 노후 경제생활계획 및 여가생활계획에 영향을 미쳤으며, 김인숙(1993)의 연구에서는 가계의 순자산이 노후 대비에 영향을 미쳐 순자산이 많을수록 노후대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 이기영 등(1995)의 연구에서도 현재 노후준비가 되어있는 중년기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의 자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5) 부인의 취업유무

부인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 남성의 은퇴에 따른 소득감소와 경제적 문제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며, 은퇴 후 소득원과 소득액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남성이 은퇴 전 생활설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인이 취업했을 경우, 그리고 직종이 전문직일 때 은퇴계획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한 Foster(1996)의 연구결과에 의해 은퇴 후 생활설계는 부인의 취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6) 직업

은퇴 후 생활설계는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McPherson & Guppy, 1979)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 종사자가 생산직 종사자보다 퇴직 후 생활에 대비한 계획성이 높다(Evans et al., 1985). 반면 직종에 따라 은퇴 후 생활설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Barfield & Morgan, 1978)도 있다.

7) 직업만족도

은퇴 후 생활설계는 직업만족도가 낮을수록 높다는 연구(Evans et al., 1985)가 있는 반면 이승아(1999)의 연구에서는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계획의 계획성이 높았으며, 특히 직업만족도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 중년기 직장남성의 생활계획에는 개인 및 가족의 특성보다 직업특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로 보았다. 또한 배문조와 전귀연(2004)의 연구에서는 이와 유사한 경향으로서 직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심리적 준비를 보다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은 직업생활에 대한 연장선에서 은퇴에 대한 준비의식이나 은퇴 후 생활설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8) 직업안정성

직업안정성이 높을수록 은퇴 후 생활설계의 가능성이 높다(Hardy & Quadagno, 1995). 이승아(1999)의 연구에서도 직업안정성이 높을수록 퇴직 후 생활계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직업안정성이 높을수록 자신이 은퇴시기를 결정하거나 예상할 수 있고, 은퇴 후 시간 활용이나 건강관리 등 구체적인 생활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9) 현재 경제적 상태

현재의 경제적 상태는 자신 및 가계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객관적인 소득 및 자산과 함께 은퇴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지은(2000)의 연구 결과에서는 현재의 경제상태를 5년 전과 비교한 현재 가계경제평가 변수가 경제생활계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5년 전에 비해 경제상태가 더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노후 경제생활계획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과거에 비해 현재의 경제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미래의 경제생활을 대비하고자 하는 의식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의 경제적 상태는 퇴직교육 참가여부에도 정적 영향을 미쳐(이주일, 2003) 현재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생활설계를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은퇴에 대한 태도

김애순과 윤진(1995)에 의하면 개인이 은퇴상황을 어떻게 지각하고 수용하는가 하는 은퇴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과정인 은퇴태도는 은퇴 이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편 은퇴 후 적응을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은퇴계획 또는 생활설계를 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의 은퇴에 대한 태도에 따라 은퇴 후 적응과 안정을 위한 생활설계의 수준과 구체적인 대처방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11) 노후대비저축액

노후를 대비한 저축이나 자산은 은퇴 후 생활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지은(2000)의 연구 결과

노후대비저축액과 노후대비자산액은 각각 노후를 위한 경제생활계획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노후대비저축액은 여가생활계획에도 정적 영향을 미쳤다. 노후대비저축액은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을 위해 예비하는 자금이므로 저축액이 클수록 현실적인 노후생활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 은퇴 후 생활 전망

은퇴 후에는 소득원의 상실 및 소득액의 감소로 인해 경제적 상태가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경제적 상태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향후 생활설계의 수립정도와 구체적인 대책이 달라질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은퇴가 개인의 은퇴 후 생활에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서 은퇴 전부터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 봉급생활자의 은퇴 후 생활문제에 대한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생활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조사함으로써 은퇴 전 생활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대처방안으로는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생활설계의 정도와 사회적 지원방안인 생활설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남성봉급생활자의 은퇴 후 생활문제인식의 실태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남성봉급생활자의 은퇴 전 생활설계의 실태는 어떠한가? 생활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남성봉급생활자의 은퇴 전 생활설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의 실태는 어떠한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조사도구의 구성

조사도구는 설문지로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영역은 남성 봉급생활자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특성,

직업특성, 은퇴특성 등의 배경적 변수이다. 개인 및 가족 특성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직업, 건강상태, 배우자의 취업유무 등을, 경제적 특성으로는 가계소득 및 순자산, 현재의 주관적인 경제적 능력을 포함하였다. 직업특성으로는 직업안정성과 직업만족도 및 은퇴태도를 선정하였으며, 은퇴특성으로는 은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상은퇴연령, 은퇴 후 예상가계소득, 노후대비투자액, 예상 필요노후자금, 은퇴 후 생활전망을 조사하였다.

둘째 영역은 은퇴 후 생활문제인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제문제, 건강문제, 주거문제, 여가문제, 가족문제의 5개 생활문제영역이며, 셋째 영역은 생활설계의 준비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경제생활설계, 건강생활설계, 주거생활

설계, 여가생활설계, 가족생활설계의 5개 영역에 대한 생활설계수준이다. 생활문제 및 생활설계를 파악하기 위한 영역은 선행연구(김태현, 1995; 전길양 등, 2000; 박경숙, 2003)를 참고로 경제, 주거, 가족관계, 여가 및 건강의 5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경제영역은 홍성희 등(1998), 전길양 등(2000)의 연구를 기초로 은퇴 후 소득, 지출, 자산, 부채, 상속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주거영역은 곽인숙(1998), 조성남(2001), 홍형욱(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노후 건강상태와 배우자유무에 따른 동거자, 선호하는 주거유형 등으로 구성하였다. 가족영역은 신화용과 조병은(1999), 김정석(2001)의 연구를 참고로 가족원간의 긴밀성과 가정 내 역할, 의사결정 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여가영역은 홍성희 등(1998), 홍성희(2000)의 연구를 기초로 노후 여가활동의 유형, 동반자, 장소, 비용 등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건강영역의 문항은 정경희(2001), 이정숙과 이인수(2005)의 연구를 참고로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일상생활관리, 예방적 건강행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넷째, 생활설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거를 제외한 경제생활, 건강생활, 여가생활, 가족생활의 4개 영역과 관련된 프로그램에의 참여의사로 구성하였는데, 기업체의 퇴직 준비 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에 관한 연구(허정무, 1998; 이주일, 2003)나 노후설계교육 요구도 연구(전길양 등, 2000)에서 주로 경제, 건강, 여가, 가족관계영역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노후주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또는 학습의 형태로 시행되기 어려운 유형으로 판단되어 제외시켰다.

중속변수로는 은퇴 전 생활설계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생활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정도를 설정하였으며, 사회에서 제공하는 생활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생활설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

는가의 여부를 설정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3.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며 공무원 및 교원 등 정년이 보장되는 직종종사자를 제외한 일반 기업체에 종사하는 남성 봉급생활자이다. 조사지역을 수도권으로 제한한 것은 도시의 규모에 따라 봉급생활자로의 취업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봉급생활자의 일반적인 재직 및 은퇴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자를 남성봉급생활자로 한정된 것은 남성이 직업역할과 가족부양자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은퇴 전후로 역할변화와 생활의 변화를 인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봉급생활자는 최근 들어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기업환경에서 퇴직시기를 자발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거나 조기퇴직하는 경향이 있어 퇴직에 대비해 생활설계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예비조사는 2005년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하여,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2005년 7월부터 9월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7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550부를 회수하였으나 부실응답 등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445부의 표본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표본의 분석은 PC SPSS Program(Ver. 12.1)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은퇴 후 생활문제인식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생활설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 중회귀분석을, 생활설계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나타내는 참여의사는 이항변수이므로 Logistic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중 가계소득 및 자산, 예상 필요노후자금 등은 평균과 표준편차의 차이가 크므로 이로 인한 극단치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회귀분석 시 로그값을 취하였다. 로지스틱 분석 및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 간의 상관계수와 VIF 계수를 검토하였다.

IV. 분석 및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평균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생활설계 경제생활설계(5) 주거생활설계(6) 가족생활설계(6) 여가생활설계(7) 건강생활설계(7) 생활설계 교육프로그램 요구	은퇴 전 생활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정도 1=전혀 계획안됨 3=중간 정도의 계획 5=완벽한 계획 은퇴 후 소득, 생활비, 자산증식, 부채감소, 상속 등에 대한 은퇴 전 계획 은퇴 후 건강상태 및 배우자 생존여부에 따른 동거자, 주거유형에 대한 은퇴 전 계획 은퇴 후 배우자와 의사소통 및 기혼자녀와의 동거, 왕래정도에 대한 은퇴 전 계획 은퇴 후 여가활동의 동반자, 장소, 비용, 사회활동정도에 대한 은퇴 전 계획 은퇴 후 건강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건강 악화 시 대처방안에 대한 은퇴 전 계획 생활설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의사가 있는가의 여부 1= 참여의사가 있다 0=참여의사가 없다
독립변수 <u>개인 및 가족특성</u> 연령 교육연수 직업(판매직·기술직) 사무직 관리직·전문직 건강상태 배우자 취업유무 <u>경제적 특성</u> 가계소득 순자산 현재 경제적 능력	만 연령(세) 1=사무직 0= 판매직·기술직 및 관리직·전문직 1=관리직, 전문직 0= 판매직·기술직 및 사무직 1=아주 안좋다 5=아주 건강하다 1=취업 0=비취업 월평균 가계소득(만원) 현재 가계 금융자산+실물자산-부채(천만원) 가구의 현재 경제적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1=하 3=중 5=상
<u>직업특성</u> 직업안정성(3) 직업만족도(3) 은퇴태도(5) <u>은퇴특성</u> 예상은퇴연령 은퇴 후 예상 가계소득 노후대비투자액 예상필요노후자금 은퇴 후 생활전망	현 직장에서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해 지각하는 긴장의 정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자신의 직업 및 직장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미래 은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정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모든 일을 그만둘 것으로 예상하는 연령 본인 은퇴 후 예상되는 가계총소득(배우자소득+이전소득+재산소득) (만원) 노후를 위해 현재 투자 또는 납부하고 있는 월평균액(공적연금+사적연금+예적금+보험) (만원) 은퇴 후 사망 시까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 (천만원) 예상되는 은퇴 후 생활전망 1=매우 나빠질 것이다 3=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5=매우 좋아질 것이다

() : 설문 문항수

연령은 42.6세였으며, 50대 이상의 분포가 가장 낮아 최근 직장인의 조기 퇴직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 수준은 대졸자가 약 55%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대학원 졸업자도 6.7%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직업은 사무직이 44.9%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직 및 전문직이 31.5%를 차지하는데 사무직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은 30대가 가장 많이 분포된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소득은 약 453만원으로 본인의 월급여가 약 352만원인 것에 비한다면 배우자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이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금융자산은 약 7천만원, 실물자산은 약 3억 7천만원 정도이며, 가계부채는 약 4천 7백만 원으로 부채를 제외한 평균순자산의 규모는 약 4억 원 정도이다. 조사대상

자가 인지하는 현재의 경제적 능력은 평균 2.78점으로 3점인 중간수준보다 약간 낮았다. 현 직장의 정년연령은 약 57세이나 자신의 예상퇴직연령은 약 55세, 모든 일에서 은퇴하는 예상은퇴연령은 64세로, 조사대상자들은 현재의 직장에서 정년연령보다 일찍 퇴직하여 다른 일에 약 9년 간 종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직장에서 경험하는 직업안정성의 정도는 3.16, 직업만족도는 3.32로 중간수준인 3점보다 높아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퇴 후 예상하는 가계소득은 약 242만원으로 현재 소득의 약 53%의 수준이며, 은퇴 후 사망 시까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자금은 약 5억 9천만 원으로 현재의 순자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45)

범주형 변수		빈도	백분율(%)
연령	30대	182	40.9
	40대	160	36.0
	50세 이상	101	22.7
교육수준	전문대졸 이하	168	37.8
	대졸	245	55.1
	석사 이상	30	6.7
직업	판매직·기술직·자유직	98	22.0
	사무직	200	44.9
	관리직·전문직	140	31.5
배우자취업유무	취업	175	39.3
	비취업	261	58.7
가계소득	300만원 이하	126	28.3
	301~400만원	107	24.0
	401~500만원	95	21.3
	501만원 이상	116	26.1
현재 경제지능력	하	144	32.4
	중·상	301	67.6
연속형 변수		평균	표준편차
연령		42.63	7.67
교육연수		15.69	2.08
배우자 연령		39.96	7.54
배우자 교육연수		14.70	2.26
평균자녀수		1.79	.57
직업근속년수		13.09	8.20
월급여(만원)		352.88	170.38
예상퇴직연령		55.34	6.21
예상은퇴연령		64.35	5.45
기대수명		78.14	6.52
가계소득(만원)		453.40	213.52
금융자산(천만원)		7.32	15.89
실물자산(천만원)		37.81	51.32
부채(천만원)		4.73	10.43
순자산(천만원)		40.40	52.10
현재 경제지능력*		2.78	.80
직장정년연령		57.52	2.95
직업안정성*		3.16	.64
직업만족도*		3.32	.79
은퇴태도*		2.99	.66
은퇴후 생활전망*		2.78	.73
은퇴후 예상가계소득(만원)		242.81	151.47
예상 필요노후자금(천만원)		59.44	44.98
노후대비투자액(만원)		48.96	43.12

* : 5점 척도

산보다 많았다. 한편 노후를 대비하여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저축하고 있는 금액은 월평균 약 49만원이었으며, 은퇴 후 생활전망은 2.78점으로 현재와 비슷한 수준인 3점보다

낮아 약간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은퇴 후를 대비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는 비율은 47.8%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 응답자들이 더 많았다.

<표 3> 은퇴 후 생활문제인식 실태

(N=445)

생활문제영역	평균	표준편차
경제문제		
은퇴 후 소득확보	3.16	.92
생활비 지출	2.69	.88
자산 보유 및 증식	2.72	.94
부채 감소	2.69	1.32
유산 상속	2.64	.97
주거문제		
은퇴 후 건강할 때 동거자	2.53	1.41
은퇴 후 건강할 때 살 주거유형	2.76	1.34
은퇴 후 건강악화 시 동거자	2.70	1.33
은퇴 후 건강악화 시 살 주거유형	2.81	1.31
은퇴 후 부부생존 시 살 주거유형	2.88	1.31
은퇴 후 배우자 사망 시 살 주거유형	2.74	1.33
가족문제		
은퇴 후 가족원과 시간공유방법	2.95	1.26
가사노동 분담	2.37	1.14
기혼자녀와 동거여부	2.33	1.21
기혼자녀와 왕래정도	2.57	1.14
자신의 가족내 권위와 역할	2.58	1.22
중요한 일에 대한 의사소통정도	2.82	1.20
여가문제		
은퇴 후 여가활동유형	3.03	1.19
여가활동 동반자	2.89	1.20
여가장소	2.76	1.13
여가비용	2.82	1.17
여가기술 및 방법	2.75	1.16
사회활동정도	2.67	1.18
은퇴 대비 여가준비 시기	2.63	1.18
건강문제		
현재와 비교한 은퇴후 건강상태	2.99	1.14
다른 사람과 비교한 은퇴후 건강상태	2.85	1.04
가족병력을 고려한 은퇴후 건강상태	2.81	1.12
일상생활을 위한 노후체력	2.77	1.04
정신적 건강	2.83	1.14
건강악화시 조력자	3.09	1.14
만성질환시 치료비용	3.10	1.17

2. 은퇴 후 생활문제 인식 실태

남성 봉급생활자들이 은퇴 후 생활의 각 영역에 대해 현재 어느 정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표 3> 참고).

전반적으로 은퇴 후 생활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영역은 건강문제였다. 은퇴 후 건강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중년 직장남성을 대상으로 한 이지은(2000)의 연구에서 신체적 건강이 노후생활에서 가장 문제될 것으로 보고된 것이나,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한 은기수(2001)의 분석에서 노인들이 건강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 결과를 통해서도 중노년기에 가장 심각하고 관심을 가지는

문제로 대두됨을 알 수 있다.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경제문제 중에서는 은퇴 후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반면 유산 상속, 부채 감소 등을 문제로 인식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은퇴 후 고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소득원이 있다고 해도 소득액이 불안정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는 은기수(2001)의 도시가계조사 분석 결과에서 노인들이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지 못했으며 1997년 외환 위기 때도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계층이 노인가구주라고 지적한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실제로 노후소득의 불확실성과 취약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불안감이 클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주거문제 중에서는 은퇴 후 부부가 모두 생존할 때 거주할 주거유형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은퇴 후 동거자에 대한 문제인식 정도는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미래의 노인세대는 자녀와의 동거의식은 낮으며,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적합한 주거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건강문제 중에서는 만성질환 시 치료비용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었으며, 근소한 차이로 건강 악화 시 조력자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노후가 길어질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한편 건강 악화 시 가족원이나 병원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본인이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은퇴 후 생활문제인식과 관련하여 생활문제가 발생 할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들이 누구의 조언이나 도움을 원하는가를 생활문제별로 알아보았다(<표 4> 참고). 전반적으로 모든 생활문제를 의논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주요 대상은 가족, 즉 배우자 및 자녀이나 생활문제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즉, 조언자로서 가족의 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가족문제이며, 다음으로 주거문제의 순이다. 가족문제 및 주거문제는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며 가족원과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므로 가족원이 조언자가 되는 비율이 높다. 반면 가족조언자의 비율이 가장 낮은 문제는 경제문제로서 상대적으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다. 건강문제 또

한 가족조언의 비율이 비교적 낮으며 전문가로부터의 조언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경제문제나 건강문제는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지되는 노후생활문제인 동시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언가로 친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은 여가문제로서, 이는 친지가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의 동반자가 되면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3. 은퇴 전 생활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성 봉급생활자의 은퇴 전 생활설계는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를 생활설계영역별로 파악하기 위해 생활설계의 수준을 검토하고(<표 5> 참고), 개인 및 가족특성, 경제적 특성, 직업특성, 은퇴특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참고).

우선 생활설계의 수준을 살펴보면, 건강설계를 가장 많이 하였으며 경제설계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은퇴 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가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경제생활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특성 중 연령과 교육연수, 경제적 특성 중 현재의 경제적 능력, 은퇴특성 중 은퇴태도와 노후대비투자액이다. 연령이 많을수록 경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노후생활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난 김미경(1992), Kilty et al.(198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표 4> 은퇴 후 생활문제 조언자

(N=445)

생활문제조언영역 조언자	경제문제조언		주거문제조언		가족문제조언		여가문제조언		건강문제조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족	134	30.2	248	56.0	277	62.2	216	48.5	160	36.1
친지	109	24.5	90	20.3	94	21.1	134	30.1	75	16.9
매스컴	29	6.5	21	4.7	17	3.8	38	8.5	49	11.1
전문서	59	13.3	10	2.3	10	2.2	12	2.7	22	5.0
전문가	113	25.5	74	16.7	47	10.6	45	10.1	137	30.9

<표 5> 은퇴 전 생활설계준비도

(N=445)

생활설계준비도	평균	표준편차
경제설계	2.28	.815
주거설계	2.51	1.049
가족설계	2.39	.944
여가설계	2.37	.928
건강설계	2.69	.803

<표 6> 은퇴 전 생활설계에 대한 중회귀분석

(N=445)

독립변인	종속변인		경제생활설계		주거생활설계		가족생활설계		여가생활설계		건강생활설계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연령	.020**	.186	.018*	.132	.009	.051	.026*	.206	.023**	.213		
교육연수	-.064**	-.168	-.052	-.102	-.016	-.034	.024	.055	.035	.092		
직업(사무직)	.100	.097	.077	.037	.103	.053	-.064	-.035	.070	.044		
직업(관리직·전문직)	-.043	.108	-.124	-.056	.061	.031	-.112	-.058	.016	.009		
건강상태	.104*	.108	.051	.040	.064	.055	.073	.066	.155**	.160		
배우자 취업유무(유)	-.043	-.207	-.121	-.057	-.107	-.054	.018	.009	.071	.044		
가계소득(log값)	.026	.014	-.063	-.025	-.043	-.018	-.038	-.017	-.211	-.110		
순자산(log값)	.101	.121	.041	.038	.038	.045	.032	.039	.121*	.144		
현재 경제적능력	.223***	.221	.092	.066	.136	.107	.009	.008	.061	.060		
직업안정성	.040	.033	-.042	-.026	.020	.013	-.016	-.011	.005	.004		
직업만족도	-.002	-.002	.080	.058	.219**	.174	.197**	.164	.163**	.159		
은퇴태도	.216**	.178	.109	.066	.277**	.181	.313**	.213	.075	.061		
은퇴후 예상가계소득	.132	.090	-.127	-.061	-.251	-.133	.012	.007	.086	.055		
노후대비투자액	.002**	.145	.002*	.141	.002*	.138	.002*	.173	.001*	.118		
예상필요노후자금(log값)	-.056	-.052	.130	.088	-.020	-.014	-.057	-.042	-.023	-.021		
은퇴후 생활전망	.020	.018	-.178*	-.119	-.058*	-.046	-.120*	-.131	.014	.013		
상수	-.500		1.502		1.412		-.674		-.021			
R ² (Adj-R ²)	.324(.285)		.142(.094)		.144(.097)		.176(.129)		.193(.158)			
F값	9.346***		3.158***		3.016***		5.747***		5.510***			

*p< .05 **p< .01 ***p< .001

볼 수 있다. 교육연수의 부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즉 고연령층일수록 은퇴 후 경제문제에 대비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현재 경제적 능력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현재의 경제적 능력을 높게 평가할수록 은퇴 후를 위한 경제설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의 경제적 설계를 위해서는 현재 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퇴태도와 노후대비투자액은 정적 영향을 미쳐 은퇴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후를 대비한 저축과 투자를 많이 할수록 은퇴 전 경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대비투자액의 정적 영향은 이지은(2000)의 연구에서 노후대비저축율이 높은 집단에서 경제생활을 계획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경향이다.

주거생활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특성중 연령과 은퇴특성 중 노후대비투자액, 은퇴 후 생활전망이었다. 연령이 많을수록 은퇴 후 주거생활에 대한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었는데,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은퇴가 멀지

않아 구체적인 주거유형이나 부양방식 등의 주생활대책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후대비투자자는 노후 주거설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주거계획은 노후의 재정적 자립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주거설계에 대비해 재정적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와 준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은퇴 후 생활전망은 부적 영향을 미쳐 은퇴 후 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할수록 주거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활수준의 저하에 대비하기 위해 스스로 주거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생활설계는 조사대상자의 직업만족도와 은퇴태도, 노후대비투자액, 은퇴 후 생활전망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직업에 만족할수록 은퇴 후 가족생활에 대한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서 남성의 역할은 경제적인 부양자 역할로 정형화되어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현상(김소영·옥선화, 2000)과 관계있는 것으로

로 볼 수 있다. 즉, 직업에 대한 몰입도와 그에 따른 만족도가 높은 남성들이 가족생활의 경험과 역할 수행이 적기 때문에 은퇴 후 배우자나 아버지로서의 역할 적응과 가족생활에 어려움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계획성이 높았던 이승아(199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후대비투자액이 많을수록 은퇴 후 가족생활을 준비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퇴 후를 대비한 저축과 투자를 많이 할수록 미래 가족생활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노후대비저축율이 높은 집단에서 노후가족생활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난 이지은(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은퇴 후 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할수록 가족생활설계를 하는 정도가 높았는데, 가족생활에 대한 준비를 은퇴 전부터 함으로써 은퇴 후 저하될 것으로 전망되는 생활수준에 적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가생활설계에는 남성 봉급생활자의 연령과 직업만족도, 은퇴태도, 노후대비투자액이 정적 영향을, 은퇴 후 생활전망이 부적 영향을 미쳤다. 현재 직업에 만족할수록, 은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은퇴 후 여가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은퇴를 현재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이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시작하는 기회로 생각하는 긍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노후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여유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후대비투자를 많이 할수록 여가설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지은(2000)의 연구에서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노후여가생활계획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경향이다. 한편 은퇴 후 생활전망은 여가설계에 부적 영향을 미쳐 은퇴 후 생활을 부정적으로 볼수록 여가생활설계를 은퇴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건강생활설계에는 연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건강설계를 하고 있었다. 즉, 연령이 많아질수록 노화현상을 경험하거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책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많을수록 노후건강에 대한 준비도가 높았던 김정석(2001), 배문조와 전귀연(2004)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평가할수록 건강에 대한 설계수준이 높는데, 건강한 사람이 건강 유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신의 건강관리방법에 정통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변수 중 순자산이 은퇴 후 건강설계에 정적 영향력을 보였는데, 경제적으로 여유

를 가질수록 예방적 건강관리와 노후 건강 악화에 대비하여 경제적 자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은퇴 후 건강에 대해 준비하고 있었다. 즉, 현재의 직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은퇴 후의 생활에 대비하는 여유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자산이 많을수록 여성봉급생활자의 노후건강 준비 수준이 높았던 홍성희와 박인숙(2006)의 연구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은퇴 후 생활계획의 계획성이 높게 나타난 이승아(1999)의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노후대비투자액은 정적 영향을 보여 노후대비투자를 많이 할수록 은퇴 후 건강에 대한 설계수준도 높았다.

전반적으로 은퇴 전 생활설계는 현재의 경제적 능력과 순자산이 일부 생활설계영역에 영향을 미쳤던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개인적 특성 중 연령과 직업특성 중 직업만족도와 은퇴태도, 은퇴 특성 중 은퇴 후 생활전망과 노후대비투자액 등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노후대비투자액은 모든 생활설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은퇴를 대비한 생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4. 은퇴 전 생활설계 교육프로그램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활설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8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사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조사대상자의 개인 및 가족특성, 경제적 특성, 직업특성, 은퇴관련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logistic분석을 실시하였으며(<표 8> 참고), 분석에 앞서 참여여부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검토하였다(<표 7> 참고). 프로그램별 참여의사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참여의사가 비참여의사에 비해 더 높은 프로그램은 은퇴 후 경제생활과 여가시간 활용의 두 가지 뿐이었으며,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참여의사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아직까지 은퇴 후 생활에 대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고 시행되고 있는 경우도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주일(2003)의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연구에서 은퇴 후 경제생활과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는 인식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생활설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중 일과 은퇴의 의미에 대한 참여여부에는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직업, 순자산,

<표 7> 은퇴 전 생활설계 교육프로그램 참여의사

(N=445)

프로그램유형	참여의사	빈도	백분율
일과 은퇴의 의미	참여하고 싶지 않다	339	82.3
	참여하고 싶다	73	17.7
은퇴 후 경제생활	참여하고 싶지 않다	175	40.4
	참여하고 싶다	258	59.6
법률지식	참여하고 싶지 않다	315	76.3
	참여하고 싶다	98	23.7
가족 및 대인관계관리	참여하고 싶지 않다	315	76.3
	참여하고 싶다	98	23.7
건강관리	참여하고 싶지 않다	293	70.8
	참여하고 싶다	121	29.2
여가시간 활용	참여하고 싶지 않다	145	33.5
	참여하고 싶다	288	66.5
학 습	참여하고 싶지 않다	237	56.0
	참여하고 싶다	186	44.0
창업 및 재취업	참여하고 싶지 않다	310	73.8
	참여하고 싶다	110	26.2

은퇴 후 생활전망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였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은퇴가 가까우므로 은퇴 후에 대한 전망과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판매직 및 기술직 종사자에 비해 관리직이나 전문직인 경우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특성 중 순자산이 적을수록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였는데, 자산이 적은 사람들이 은퇴 후 경제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은퇴관련변수 중에서는 은퇴 후 생활전망이 프로그램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은퇴 후 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할수록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경제생활 프로그램의 참여에는 연령과 배우자의 취업유무, 은퇴태도, 노후대비투자액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연령이 적을수록 은퇴 후 경제생활에 관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이는 연령이 적을수록 퇴직교육욕구가 높았던 이주일(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즉,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만 은퇴 후 경제생활을 조기에 대비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향은 최근 조기퇴직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우자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 은퇴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노후대비투자액이 적을수록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했는데, 이러한 경우 은퇴 후 경제적인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경제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률지식에는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면옥(1992)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퇴직교육욕구에 가장 큰 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직업안정성이 낮아 봉급생활자로서의 전망이 불안정한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은퇴 후를 대비해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및 대인관계관리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연수와 직업만족도, 예상 필요노후자금이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필요노후자금을 적게 예상할수록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참여에는 은퇴태도와 직업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은퇴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건강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여가시간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노후 건강을 염려하여 건강관리와 관련되거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과 체력관리 등과 관련된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8> 은퇴 전 생활설계 교육프로그램 요구에 대한 logistic 분석

(N=445)

독립변수	종속변수	일과 은퇴의 의미	은퇴후 경제생활	법률지식	가족 및 대인관계 관리	건강관리	여가시간 활용	학습	창업 및 재취업
		P. E.	P. E.	P. E.	P. E.	P. E.	P. E.	P. E.	P. E.
		S. E.	S. E.	S. E.	S. E.	S. E.	S. E.	S. E.	S. E.
연령	.091*** .026	-.042* .020	-.019 .024	.011 .028	-.037 .020	.014 .022	-.008 .025	-.014 .020	
교육연수	.152 .087	.120 .064	.174* .082	.341** .101	-.031 .064	.110 .073	.002 .082	.112 .064	
직업(사무직)	-.135 .361	.128 .289	.218 .329	-.343 .416	-.174 .301	.278 .344	.430 .411	.326 .288	
직업(관리직·전문직)	-.921* .462	-.150 .331	-.686 .416	-.669 .488	.082 .346	-.156 .391	.311 .459	.138 .333	
건강상태	-.240 .178	.003 .137	.165 .166	.059 .197	-.155 .141	.359* .161	.192 .179	.017 .134	
배우자 취업유무(유)	-.281 .371	-.633* .274	-.227 .330	-.283 .403	-.095 .282	-.549 .319	-.730* .361	-.190 .276	
가계소득(log값)	-.358 .552	.447 .428	.181 .516	.127 .635	.053 .440	.640 .520	1.089* .570	.142 .440	
순자산(log값)	-.482* .213	.223 .160	-.183 .185	-.308 .165	.087 .166	.002 .134	-.073 .152	-.256 .164	
현재 경제적능력	.296 .261	.242 .192	.060 .226	.084 .276	.119 .199	.051 .228	.106 .262	.326 .195	
직업안정성	.217 .247	.175 .182	-.545* .215	-.151 .260	.067 .179	.198 .209	.106 .240	-.381* .186	
직업만족도	.219 .209	-.001 .153	.090 .187	.509* .247	.365* .163	.034 .179	-.314 .206	.100 .154	
은퇴태도	-.196 .268	-.456* .202	.126 .244	-.440 .313	-.491* .208	-.289 .240	.336 .278	-.347 .201	
은퇴후예상가계소득	-.309 .379	-.147 .281	.001 .001	.009 .383	.012 .283	-.101 .305	-.100 .357	-.660* .282	
노후대비투자액	-.001 .002	-.004* .002	.000 .002	.000 .003	-.003 .002	-.001 .002	-.004 .002	-.001 .002	
예상필요노후자금(log값)	.155 .243	-.258 .181	-.265 .214	-.703* .274	-.090 .187	-.136 .213	.258 .251	.234 .082	
은퇴 후 생활전망	.495* .247	-.004 .184	.034 .221	.428 .260	.047 .189	.118 .206	-.152 .239	-.156 .185	
상수	-4.875 3.083	-.597 2.333	-2.605 2.874	-6.422 3.542	2.983 2.424	-6.910 2.758	-8.346 3.077	2.260 2.387	
Log Likelihood	300.234***	476.539***	363.609***	251.861**	459.225***	355.598***	291.244***	475.681***	

*p< .05 **p< .01 ***p< .001

학습 프로그램의 참여에는 배우자의 취업유무와 가계소득이 영향을 미쳤다. 즉, 배우자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 은퇴 후를 위해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

고자 하며,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참여를 원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경험이나 자신이 해보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자 하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창업 및 재취업 프로그램의 참여에는 직업안정성과 은퇴 후 예상가계소득이 각각 영향을 미쳤다. 직업안정성이 낮을수록 참여를 원했는데, 현재 직업 및 직장생활에서 안정성이 낮다면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기 때문에 전직을 위한 준비로서 창업이나 재취업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호할 것이다. 또한 은퇴 후 소득을 적게 예상할수록 참여를 원했는데, 은퇴 후 소득의 증대를 위해 재취업이나 창업을 원하고, 따라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각 프로그램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순자산이 일과 은퇴의 의미 프로그램 참여에 영향을 미쳤던 것을 제외하고는 직업과 가계소득, 현재의 경제적 능력 등 사회경제적 특성이 생활설계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제적 요인보다는 연령과 교육수준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직업안정성, 직업만족도, 은퇴태도, 은퇴 후 생활전망 등 심리적 특성 및 은퇴특성이 결정요인으로 부각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성봉급생활자의 은퇴 전 생활설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영역에서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러한 생활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적인 준비로서 생활설계 정도와 사회적 지원으로서의 생활설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중심으로 대처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는 은퇴가 경제문제와 같은 단일의 생활영역에 국한된 문제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 문제를 복합적으로 유발시키는 사건이므로 전반적인 생활영역에 대한 생활설계가 필요하며, 개인적인 준비 뿐 아니라 생활설계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의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은퇴생활설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집단인 남성 봉급생활자를 중심으로 경제, 건강, 주거, 여가 및 가족관계의 5개 생활영역에 대한 심층적인 은퇴 후 생활문제 인식과 함께 개인의 생활설계준비도와 참여의사를 통한 생활설계 교육프로그램 요구를 조사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봉급생활자들은 생활문제영역 중 경제문제에서는 은퇴 후 소득 확보를, 주거문제 중에서는 부부 생존 시 거주할 주거유형을, 가족문제 중에서는 은퇴 후 가족원과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었다. 또한 여가문제 중에서는 은퇴 후 여가활동유형을,

건강문제 중에서는 만성질환 시 치료비용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흔히 은퇴설계프로그램이 경제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와 같은 생활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인식의 결과는 다양한 생활문제를 중심으로 한 은퇴설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은퇴 후 여러 생활영역에 대한 문제 인식도가 보통 수준인 3점 내외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 이것은 은퇴 후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므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기 보다는 오히려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노후설계의 문제점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경제문제와 건강문제의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여가문제의 경우 친지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비율도 높지만, 대체로 생활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주로 가족이었던 것은 은퇴 후 설계가 주변의 가족 및 친지를 중심으로 한 비형식적 집단 내의 정보와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기업 및 사회단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은퇴설계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남성봉급생활자들의 은퇴 전 생활설계 준비도는 모든 영역에서 평균 3점 이하의 낮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경제설계의 수준은 가장 낮았다. 이는 은퇴 후 생활문제를 인지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이러한 생활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은퇴 전 생활설계 준비도에 영향을 미쳤던 변수는 생활설계의 영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직업이나 가계소득, 자산 등 봉급생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나 은퇴 후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는 예상가계소득 및 예상필요노후자금과 같은 변수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모든 생활설계 영역에 대해 노후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노후대비투자액이 의미있는 변수였다. 즉, 은퇴기까지의 물가상승이나 은퇴 후 소득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정확하고 막연한 추정액인 은퇴 후 예상소득이나 예상노후자금보다는 현재 일정한 금액으로 투자하고 있는 투자액이 더 현실적인 생활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봉급생활자의 노후대비저축은 은퇴 전 생활설계를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은퇴 전 생활설계가 미래의 노후생활에서 원하는 생활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는 실효성을 갖으려면 노후대비투자를 유추하는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에서 노후대비투자액에 따른 향후 가능한 생활수준과 생활의 범위 등에 대한 포트폴리오 정보를 동시에 제안하여 이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생활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직업만족도에 의해 가족생활, 여가생활, 건강생활

설계 준비도가 영향을 받거나 은퇴에 대한 태도가 경제생활, 가족생활, 여가생활설계 준비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던 결과는 은퇴 전 생활설계에 있어서 직업의 종류, 은퇴연령과 같은 객관적 지표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와 심리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설계 프로그램에서 남성봉급생활자가 긍정적으로 직업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 후 생활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측면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생활문제인식과 생활설계준비도의 관련성을 살펴볼 때 남성봉급생활자들이 예상하는 은퇴 후 생활문제 중 전반적인 문제가 심각했던 영역은 건강문제이며, 단일 항목으로서는 경제문제 중 은퇴 후 소득확보를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 두 가지 영역은 조연자로서 가족원 이외에 전문가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영역이기도 하다. 즉, 심각한 문제만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은퇴 후 소득문제를 심각한 노후문제로 예상하면서도, 이에 대한 생활설계의 수준은 가장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생활설계에 앞서 생활문제에 대한 인식과 수준을 파악하여 개인의 생활설계의 문제점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생활설계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생활문제에 초점을 둔 본 연구의 의의를 입증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한 생활설계는 다른 영역에 비해 여러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음으로써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생활설계의 수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결국 경제생활과 건강생활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설계영역으로서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은퇴에 대비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전문가의 도움이나 생활설계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남성봉급생활자의 생활설계프로그램 참여의사는 프로그램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높지 않았다. 예상과 달리 가장 높은 참여의사를 보인 프로그램은 여가시간 활용이었고, 경제생활이 그 다음의 순이었다. 그 밖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사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다양한 생활영역에 대한 생활설계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것은 은퇴 후 생활의 변화를 단순한 생활의 문제, 즉 생활비 조달이나 소득 확보와 같은 측면에서만 접근하며, 다양한 생활영역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인식상의 한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은퇴 후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생활설계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홍보와 지속적인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생활설계 프로그램 요구의 영향요인은 프로그램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봉급생활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원하는 프로그램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과 은퇴의 의미와 은퇴 후 경제생활은 봉급생활자의 연령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데, 연령은 각각의 프로그램에 정적 영향과 부적 영향을 미쳤다. 즉, 고연령층은 은퇴를 앞두고 일과 직장을 떠나 은퇴를 받아들이는 준비 프로그램을, 젊은 층은 은퇴 후 불확실한 경제적 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생활설계 프로그램을 연령대별로 차별화시키며, 연령대에 따라 초점을 달리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령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젊은 30대 봉급생활자에게는 은퇴에 대비한 장기적인 경제적 준비를, 50대에게는 퇴직금 활용과 은퇴 후 생활적응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권장할 수 있다. 또 배우자의 취업상태에 따라 부부취업가계에는 부부가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데서 오는 문제점을 조정하는 시간관리프로그램 및 가사노동 분담방안이나 1인 소득가계보다 높은 소득과 지출수준에 적합한 저축액 설정, 은퇴 전의 높은 지출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은퇴 후 경제생활 등 1인 취업가계와는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남성 봉급생활자들의 생활설계준비도와 생활설계 프로그램의 요구에 대한 영향요인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경향을 보이는데, 즉, 연령이 경제생활설계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생활설계와 관련된 프로그램인 '일과 은퇴의 의미', '은퇴 후 경제생활'의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연령에 따라 경제생활설계의 수준과 경제생활설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의 참여의사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직업만족도는 가족생활설계 및 건강생활설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영역의 설계수준과 관련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관리'나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생활설계준비도와 생활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체 및 사회단체 등 생활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퇴직준비교육을 실시하는 조직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뿐 아니라 원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영역의 생활설계의 여부나 수준을 동시에 파악하고 프로그램 수강 후 생활설계를 수립하거나 점검하는 과정까지 피드백시킨다면 프로그램의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무엇보다 남성봉급생활자의 은퇴 전 생활설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구체적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가족과 친지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적인 준비도도 낮

은 수준이지만, 은퇴설계프로그램과 같은 전문적 교육을 받음으로써 개인적인 준비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도 높지 않아 봉급생활자들의 은퇴에 대한 대처방안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임금의 규칙성과 기대은 퇴연령 등이 어느 정도 예상되어 생활설계가 비교적 용이 할 수 있는 남성봉급생활자조차 은퇴생활설계가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은퇴 전 생활설계 프로그램에 있어서 문제인식의 단계부터 실질적인 준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은퇴 전 생활설계프로그램의 당위성과 효과가 적극적으로 홍보되어야 하며, 기업이 사원 복지 및 조기퇴직자의 전직 지원의 차원에서 필수교육으로 실시하는 전면적인 시행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은퇴에 따른 생활문제의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서의 생활설계 및 생활설계프로그램 요구를 은퇴를 전후한 과정으로서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그 연관성을 밝히는데 기여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봉급생활자 개인의 현재 상황과 여건에 따라 은퇴 후에 경제적 문제 이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어떤 생활영역에서 설계가 필요한지를 인식시킬 수 있다. 또 생활문제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봉급생활자에게 사회적 지원체계가 있음을 인식시킬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부서와 임금근로자의 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단체에서 봉급생활자의 노후문제 관심사 및 노후대책의 실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은퇴 후 생활에 대처하기 위한 공격 지원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은 윤리경영에 입각하여 앞으로 전직지원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때 사원들이 원하는 지원프로그램을 세분화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기존의 주부 교육프로그램 이외에 본 연구결과를 참고로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남성이장의 은퇴에 대비해 부부가 같이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한 대안적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대상 및 조사도구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즉, 연령을 고려한 유의표집에도 불구하고 30대 대상자가 많아 이들이 은퇴 후의 생활문제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은퇴 후 생활문제를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예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생활설계 역시 영역에 따라 먼 미래의 일로 인식되어 구체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 결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생활계획과 관련된 변수를 주로 봉급생활자 개인의 관점에서 개인적 특성, 경제적

및 직업특성, 은퇴특성에 국한시켜 분석하였으나 은퇴와 관련된 노후보장정책, 퇴직준비교육 등 사회적 지원을 포함하는 거시적인 차원의 사회환경적 특성도 앞으로의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 접수일 : 2006년 03월 15일
- 심사일 : 2006년 04월 04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6월 26일

【참 고 문 헌】

곽인숙(1998). 노인의 취업여부와 건강상태에 따른 주거선호. **대한가정학회지**, 36(1), 43-60.

김두섭·박경숙·이세용(2000).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 **한국인구학**, 23(1), 55-89.

김두섭(2001). "한국사회구조의 변화와 노년기의 가족관계".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김미경(1992). **중년층의 노년 생활준비 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김소영·옥선화(2000). 기혼남성의 아버지역할과 직업역할 몰입유형화와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25-139.

김순미·홍성희·김혜연·김성희(2004). 봉급생활자의 은퇴설계 : 보인 부양으로서 유료노인시설 선호 및 요구도. **대한가정학회지**, 42(5), 175-192.

김연옥(1992). 퇴직예정자의 퇴직태도 및 퇴직 후의 계획에 대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제 4호, 1-26.

김애순·윤진(1995). 은퇴 이후의 심리·사회적 영향 - 은퇴는 위기인가? -. **한국노년학**, 15(1), 141-158.

김인숙(1993). **농가의 노후의 경제적 요구와 대비수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정열(1997). **퇴직 전 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정석(2001). "노년기 가족관계의 질에 대한 척도 구성".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김정석(2001). "노후부양주체로서의 노인, 가족, 사회/국가의 역할 : 중년층의 노후부양태도와 준비실태를 중심으로".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김정현(1995). **가족지지가 남자노인의 은퇴스트레스와 은퇴**

- 후 적응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상위 직종자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태현(1995). 노년학. 교문사.
- 문소정(1995). 가족이데올로기의 변화.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 문숙재 · 김순미 · 김연정(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23-236.
- 문윤상(1996). 우리나라 노인산업의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경숙(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의암출판
- 박선옥(1997). **중장년 사무직을 위한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태도와 프로그램욕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 연구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문조 · 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89-102.
- 문윤상(1996). 우리나라 노인산업의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병숙(1996). **노인연구**. 서울: 교문사.
- 성미애(1999). **남성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 후 적응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성미애 · 옥선화(2002). 남성 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 후 적응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9.
- 송정선(1997).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하연(1997). **중년기 소비자들의 경제적 노후대비수준과 실버타운에 대한 요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화용 · 조병은(1999).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상호작용특성과 결혼만족도. **한국노년학**, 19(1), 31-44.
- 윤진(1985). **성인 및 노인심리학**.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이광규 · 김태현 · 최성재 · 조홍식 · 김규원(1996). **가족의 관계역동성과 문제인식**. 서울 : 집문당.
- 이기영 등(1995).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Ⅱ): 경제생활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5).
- 이승아(1999). **중년기 직장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계획**.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이은경(2002). 중년기 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후준비도에 관한 연구. **동부산대학 논문집**, 21집, 715-744.
- 이정숙 · 이인수(2000). **개호복지론**. 서울 : 대학출판사.
- 이정숙 · 이인수(2005). 노년기 건강관리행동과 사회경제요인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7, 231-253.
- 이주일(2003). 기업구성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준비교육 요구. **한국심리학회지**, 16(1), 57-79.
- 이지은(2000).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형실(2001). 기혼 취업여성과 남성의 가족 및 직업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143-152.
- 은기수(2001). "한국 노인들의 경제생활".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 장삼수(1998). **조기퇴직 불안이 중년기 위기에 미치는 영향 -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40-50대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장인협 · 최성재(2000). **노인복지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길양 · 송현애 · 고선주 · 김일명(2000). 노년기 준비교육 프로그램 - 풍요로운 노후 가꾸기 -. **한국노년학**, 20(1), 69-91.
- 정경희(2001). "노년기의 건강".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 정경희 · 오영희 · 석재은 · 도세록 · 김찬우 · 이윤경 · 김희경(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조성남(2001). 노인의 건강과 가족.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 지연경 · 조병은(1991). 내외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2), 217-240.
- 최가영 · 조임현 · 이의훈(2001). 노년기근로자의 퇴직현상에 관한 심층적 연구. **한국노년학**, 21(1), 73-92.
- 최보아 · 지영숙(2004). 은퇴자의 생활설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47-61.
- 통계청(2005). 2004년 사회통계조사 주요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 허정무(1993). **교원의 정년퇴직 준비 과정과 퇴직후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허정무(1998). 퇴직자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탐색을 통한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한국노년학회지**, 18(3), 1-18.
- 홍성희, 이경희, 박인숙, 김순미, 김혜연, 김성희(1998) 노년기 생활설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중노년층의 노후생활계획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 홍성희(1998).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107-123.
- 홍성희(2000). 중노년기 여가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8(5), 121-136.

- 홍성희·곽인숙(2006). 중년기 남녀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 분석 :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93-207.
- 홍형욱(2001).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 - 한국에서의 노인생활지원주택 개발 방향을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47-166.
- Atchley, R.(1988). Retirement and Leisure Participation : Continuity or Crisis?. *The Gerontologist*, 13(17).
- Atchley, R.(1988). *Social Forces in Later Life*, Wadsworth Publishing Co..
- Atchley, R. C.(1991). *Social Forces and Aging: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Belmont, CA. Wadsworth.
- Barfield, R. & Morgan, J.(1978). Trends in Planned Early Retirement. *Gerontology*, 11, Spring, 29-32.
- Bischof, L.(1969). *Adult Psychology*. N.Y.: Harper & Row.
- Boss, R., Aldwin, C. M., Levenson, M. R. & Workman-Daniels, K.(1991). How Stressful is Retirement?: Findings from the Normative Aging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46(1), 9-14.
- Evans, L. Ekerdt, D. J. & Bosse, R.(1985). Proximity to Retirement and Anticipatory Involvement : Findings from the Normative Aging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40(3), 368-374.
- George, L. K.(1980). *Role Transitions in Later Life*. Brooks Cole Publishing Company.
- Golant, S. M.(1982). Individual Differences Underlying the Dwelling Satisfaction of the Early. *Journal of Social Issues*, 38(3), 121-133.
- Hardy, M. A. & Quadagno, J.(1995). Satisfaction with Early Retirement : Making Choices in the Auto Industry. *Journal of Gerontology*, 50(4), 217-228.
- Jacobson, D.(1974). Planning for Retirement and Anticipatory Attitudes toward Withdrawal from Work. *British Journal of Guidance Counseling*, 2, 72-78.
- Kilty, K. M. & Behling, J. H.(1985). Predicting the Retirement Intentions and Attitude of Professional workers. *Journal of Gerontology*, 49(2), 219-227.
- Knox, A. B.(1977). *Adult Development and Learning : A Handbook on Individual Growth and Competence in the Adult Years for Education and the Helping Profession*. San Francisco : Josey-Bass Company.
- Maddox, G. L.(1970). Adaptation to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10, Spring, 14-18.
- McPherson, B. & Guppuy, N.(1979). Preretirement Life-Style and the Degree of Planning for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34, 254-263.
- Miller, S.(1965). The Social Dilemma of the Aging Leisure Participant in W. Peterson(Eds.), *Older People and their Social World*. Philadelphia, F. A. Davis Co., 77-92.
- Parens, H. S., J. & Gilbert, N.(1981). *The Retirement Experience*. Cambridge, MA: MIT Press.
- Rice, A. S. & S. M. Tucker(1986). *Family Life Management*.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